

광주서 세계적 '반도체 설계 인재' 키운다

GIST-Arm, 업무협약 체결…5년간 인력 1400명 육성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첨단산업 정책 핵심거점 부상

광주에 세계적 반도체 설계기업인 암(Arm)의 인재양성소가 들어선다.

광주시는 11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세계 1위 반도체 설계 지적재산권(IP) 기업인 영국 암(Arm)과 GIST가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기철 GIST 총장, 황선우 Arm 코리아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설립되는 '지스트-암(GIST-Arm) 스쿨'은 향후 5년간 총 1400명의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적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의 핵심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도입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Arm IP 기반 반도체 설계 교육과정 공동 기획 △교육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공동 기획 및 협력 △

황선우 Arm 코리아 대표는 "광주과학

Arm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교육·연구 콘텐츠 및 자료 활용 △산업·연구 프로젝트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설계 운영 협력 △교육 성과에 대한 인증 및 공식 수료 인증 방안 논의 등이다.

영국에 본사를 둔 Arm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반도체 IP 기업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과 서버,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다. 시는 GIST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Arm의 세계적 기술력을 결합해 광주를 글로벌 산학협력의 성공 모델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임기철 GIST 총장은 "GIST-Arm 스쿨은 설계 중심 교육을 넘어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으로 확장되는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우 Arm 코리아 대표는 "광주과학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오후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암(Arm)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술원과의 협력이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한 축으로,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국가

첨단산업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GIST-Arm 스쿨이 세계적 반도체 인재양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국가 NPU 전용 컴퓨

팅센터 광주 설립 △반도체 첨단파키징 실증센터 구축 등 핵심 사업과 연계해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 △반도체 특성화대학(전남대) △반도체 첨단파키징 전문인력 양성(조선대)

△삼성전자 계약학과(GIST) 등 교육·연구기관을 운영 중이다.

이번 'GIST-Arm 스쿨' 설립을 통해 반도체 인재양성의 전 주기 사다리를 완성하게 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흡입력 2배·스팀살균'…삼성, AI 로봇청소기 출시

고도화된 주행 성능·강력한 보안 솔루션까지 갖춰
구매·설치·제품 관리·AS까지 원스톱 설치 서비스

삼성전자가 한국 가정에 최적화된 2026년형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올트라·플러스·일반형 3개 라인업으로 출시되며, 강력한 흡입력과 AI 기반 고도화된 주행 성능, 독보적인 스팀 살균 기능에 강력한 보안 솔루션까지 두루 갖췄다.

먼저 올트라와 플러스 모델은 기존 대비 최대 2배 더 강력한 10W 흡입력을 갖춰 미세먼지는 물론 머리카락까지 깨끗하게 흡입할 수 있다.

'팝 이웃 물걸레'로 벽면까지 밀착해 걸레질하고, 모서리와 구석의 먼지는 '팝아웃 사이드 브러시'가 확장돼 더욱 편안하게 흡입된다.

또 이번 신제품은 최대 45mm의 단일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이지패스 훈'이 적용돼 매트나 문지방이 있어도 자유롭게 주행하며 청소한다.

AI 사물·공간 인식 기능도 진화했다. 제품 전면에 탑재된 RGB(Red, Green, Blue) 카메라 센서와 적외선(IR) LED를 통해 유색 액체는 물론 물처럼 투명한 액체까지 회피하거나 집塵 청소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됐다.

청소 후의 위생 관리도 간편해졌다. '스팀 청정스테이션'은 100°C의 스팀으로



삼성전자가 한국 가정에 최적화된 2026년형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를 출시했다

제공된다.

'AI 구독클립'은 전국 삼성스토어 및 삼성닷컴에서 가입 가능하다.

특히 삼성전자는 로봇청소기 구매 고객들에게 리폼한 가구장을 기준대로 월상복구할 수 있는 '리폼장 원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삼성전자는 전국 169개 서비스센터 가운데 117개 센터에 로봇청소기 전용 서비스 인력을 확충해 업계 최대 규모의 로봇청소기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더욱 편리하게 제품 점검과 AS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네이버 온라인 매장에서 '비스포크 AI 스팀'

'올트라' 모델의 사전 판매를 실시한다.

사전 구매한 고객은 12만원 상당 액세서리 키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비스포크 AI 스팀 올트라'와 '비스포크 AI 스팀 플러스' 2개 라인업을 정식 판매하며, '비스포크 AI 스팀 일반형'은 4월부터 판매한다.

삼성전자는 한국총괄 임성택 부사장은 "이번 신제품은 흡입력과 위생 솔루션 등 로봇청소기의 갖춰야 할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보안으로 고객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K-로봇청소기"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삼성전자만의 안심 서비스로 로봇청소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성장 지원 투자연계 '창업-BuS' 전국으로 확대

중기부 '스타트업 투자 유치 지원 사업' 전국 17곳서 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투자유치 특화형 지원사업인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올해 전국 17개 혁신센터에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혁신센터가 지역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지원하기 위해 2024년 5월

처음 시작했다.

같은 해 5개 혁신센터(경기·인천·충북·광주·울산)의 시범운영 이후 이듬해 신규 3개 센터(강원·경남·제주)를 추가했다. 올해에는 프로그램을 모든 센터에서 운영한다.

창업-BuS는 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해 3개월 이내에 초기투자, 6개월 이내에 TIPS, 12개월 이내에 후속투자 연

계획이다.

5월에는 전국 혁신센터들이 5개의 권역으로 나눠 광역권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10월에는 모든 혁신센터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 투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BuS 플랫폼을 통해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를 통한 신속 성장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공동 개발 착수

산업부, 5년간 1조원 투자

김 장관 퓨리오사AI 간담회

2조 규모 반도체 특별회계

4.5조 상생파운드리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조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공동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산 AI칩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기업의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산 칩 적용 사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을 신속히 제정해 국산 NPU의 공공부문 활용을 확대한다.

올해 안에 2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 4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 파운드리 구축을 검토하는 등 AI반도체 실증·양산·확산을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김경관 장관이 11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AI반도체 핵심사업 성장전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퓨리오사AI를 비롯해 텔레칩스, 리밸리온, 딥엑스, 모빌린트, 하이퍼엑셀 등 국내 AI반도체(NPU) 기업과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으로 AI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이와 함께 구조가 변화하는 한편, 상생 파운드리가 전기부품 제조에 적합한 특성을 확보하고, 민관 합동으로 공동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만든다.

파운드리 업계의 병목으로 지적돼온 편평화 문제도 개선한다.

M.AX 얼라이언스 내 '반도체 제조지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첨단 공정 시제품 제작(MPW)과 설계자산(IP) 활용 지원을 강화한다.

증장기적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12인치 40nm(나노미터) 상생 파운드리 구축 가능성도 검토한다.

재정·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산업부는 연내 2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퓨리오사AI는 전용 투자펀드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시간 제약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을 뒷받침 한다.

현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방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확충을 추진하고, 설계 인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IP 기업 커리큘럼을 도입한 'Arm 스쿨'을 연내 설치한다.

이와 함께 차량·전력·통신·국방 등 분야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미들 텍(Middle-tech) 반도체' 지원도 강화한다.

당장 1분기부터 관련 정책 패키지를 기동해 국산 AI반도체의 상용화 속도를 높인다.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공동개발·상용화 사업을 올해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연합뉴스